

 국토교통부	<h1>보도자료</h1>		<small>국민의 내일을 위한 정부혁신</small> 보다나온 정부
	배포일시	2018. 11. 18(일) 총 6매(본문4)	
담당 부서 국토정책과	담당 자	• 과장 김규철, 서기관 나진항, 주무관 김봉길 • ☎ (044) 201-3650, 3653	
보도 일시	2018년 11월 19일(월)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11.18(일) 11:00 이후 보도 가능		

“국민과 함께 국토의 새로운 미래 만든다”

최상위 국토계획인 ‘국토종합계획’ , 50년 만에 국민 직접 참여

- 우리 국토의 20년 비전과 미래 전략 마련에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11월 17일 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제1회 국민참여단 회의를 개최했다.
 - 국토종합계획은 국토의 장기적인 비전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을 마련하는 국토 분야의 최상위 계획이다.
 - 제1차 국토종합계획 수립이 외국인의 손*에서 시작한 이래 국민들이 계획 수립에 직접 참여하는 것은 50년 만에 처음이다.
 - * 프랑스의 지역개발 및 도시계획 컨설팅 회사 오타 메트라(OTAM metra)
- 국토교통부는 제5차 국토종합계획을 진정한 의미에서의 상향식 계획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국민참여단을 비롯한 다양한 방식으로 의견을 수렴해왔다.
 - 지역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역별로 찾아가는 설명회를 개최하였고, 지자체로부터 계획 제안(226건)을 받아 제5차 국토종합

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검토하고 있다.

- 국토종합계획의 시안도 선정 가능한 시나리오를 제시하는 등 향후 공청회 등에서 나온 의견이 내실 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열린 시안”으로 작성할 계획이다.
- 또한, 제5차 국토종합계획 이후 수립되는 국토계획은 국민참여단 운영 등 직접적인 국민참여 방안을 마련하도록 할 방침이다.

□ 국민참여단은 국토종합계획 전용 누리집 등을 통해 신청한 국민들 중 170명을 선정하여 구성했다.

- 이들 170명은 17개 광역지자체의 의견을 고르게 들을 수 있도록 각 광역지자체별로 우선 5명씩을 선정하고, 나머지 인원은 나이, 성별 등을 고려하여 추첨을 통해 선정했다.

□ 이날 제1차 회의에서는 전국 각지에서 110여 명의 국민참여단들이 참석하여 서로의 의견을 공유했다.

- 3차에 걸친 분임토의를 통해 “국토의 문제와 향후 국토 이슈”, “국토의 미래상과 추구가치”, “국토발전 추진전략 및 정책과제”를 논의했다.

- 국토의 문제로는 난개발, 지역간 격차, 인프라 노후화, 인구감소, 획일적 개발 등을 지적하였으며,

- 추진 전략으로는 균형발전, 인프라 등 전통적으로 국토종합계획에서 주로 다루었던 주제 이외에도 평화, 개성, 안전 등 기존 계획에서는 다소 소홀히 했던 주제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

* 추진전략 1순위: 평화 국토(5개 분임/17개 분임),
안전 국토, 개성·매력 국토(3개 분임/17개 분임)

- 오늘 논의된 결과는 정리하여 향후 국토종합계획에 반영 할 전략을 마련하고, 계획 수립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가칭)국토계획현장” 등을 마련하는 데 활용할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는 국토종합계획 확정시까지 국민참여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면서 수시로 의견을 듣고, 주요한 정책과제에 대해서는 국민참여단 회의를 개최*하여 논의할 계획이다.

* '19년 중 2회 추가 개최 예정

-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은 참여단회의에 참석하여 “제5차 국토종합계획 이후 수립되는 국토계획은 직접적인 참여를 통해 수립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자부심과 책임감을 가지고 좋은 지혜를 모아줄 것”을 당부했다.

○ 이날 참여한 국민들은 다음과 같은 소감을 이야기 했다.

배미란(경상남도 거제시)

“균형발전 관련 정책을 국토종합계획에 꼭 반영하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새벽 5시에 아이가 자는 모습을 보고 나왔다. 조원들끼리 화목하고 좋은 대화를 나눌 수 있어서 좋았다.”

박장순(경기도 수원시)

“별 기대 없이 왔는데, 토론을 통해서 다시 한 번 국토문제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었다. 다양한 분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어서 좋았고, 계속 참여하겠다.”

류한철(대구광역시)

“국토종합계획 수립에 직접 참여할 수 있어서 영광이다. 모든 것을 다 서울에서 하는 데, 지방이 살아야 전국의 경쟁력이 살아난다.

지방과 수도권이 균형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계획이 수립되었으면 좋겠다.”

이채령(경기도 하남시)

“너무 즐거웠다. 오늘 참석하신 분들은 지역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계신 분들이라고 생각한다. 지역이 국가의 주인공이다. 지역의 발전이 국가의 발전이고 내가 사는 공간에서 국가발전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국토정책과 나진향 서기관(☎ 044-201-3650)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 용	시 간	세 부 일 정
등록 및 중식	11:00~12:00	등록 중식(도시락)
국민참여단 개회	12:00~12:10	개회 및 소개
	12:10~12:20	개회사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 환영사 강현수 국토연구원장
	12:20~12:30	위촉장 수여(장관님 → 대표자*) * 성별, 나이 등을 고려하여 선정 예정
국토종합계획 이해하기	12:30~13:00	국민과 함께 만드는 「제5차 국토종합계획」 (차미숙 국토연구원 국토계획·지역연구본부장)
질의응답	13:00~13:20	발표 관련 질의응답
1차 분임토의	13:20~14:05	국토의 문제와 향후 국토 이슈 논의
공유하기	14:05~14:20	1차 분임토의 내용 전체 공유
휴식	14:20~14:35	휴식
10대 청소년들이 생각하는 우리 국토	14:35~14:45	청소년 설문조사 내용 공유 (정우성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
2차 분임토의	14:45~15:25	국토 미래비전과 추구가치 논의
공유하기	15:25~15:40	2차 분임토의 내용 전체 공유
휴식	15:40~15:55	휴식
3차 분임토의	15:55~17:00	국토발전 추진전략 및 정책과제 논의
설문조사	17:00~17:10	설문조사
평가 및 소감	17:10~17:20	분임 내 평가 및 소감나누기
	17:20~17:25	전체공유
폐회	17:25~17:30	향후 일정안내 및 폐회

□ 국민참여단 역할

- 제5차 국토종합계획에 대한 자유로운 의견 개진
 - (1차 회의: 브레인스토밍 방식) 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립 방향에 대해 이해하고, 분임토의를 통해 누적된 국토문제, 향후 새로운 여건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이슈 제시, 2040 국토미래상 등 다양한 의견 제시
 - (2,3차 회의: 쟁점이슈 토의 방식) 1차 회의시 국민참여단이 제안하는 이슈를 토대로 회의주제 선정 예정

□ 국민참여단 참여규칙

- 국민을 대표하는 국민참여단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하게 참여하겠습니다.
- 제5차 국토종합계획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토의 과정에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 거주하는 지역문제만을 이야기하기보다는, 우리 국토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바람직한 방향에 대해 논의하겠습니다.
- 퍼실리테이터의 안내를 잘 따르고, 국민참여단들의 의견을 경청하며 원활한 토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겠습니다.